

미국, 日 대미투자 52조원 규모…첫 프로젝트 3개 발표

텍사스 석유수출·오하이오 가스발전·조지아 광물 등
美 “자본 日이 대고, 인프라는 美에”…한국에 압박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일본과 체결한 통상·관세 합의에 따라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는 첫번째 프로젝트 3개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일본과의 거대한 무역협정이 막 출범했다”며 “일본은 이제 공식적, 재정적으로 미국에 대한 5500억달러(약 796조원) 투자 약속에 따른 첫번째 투자 세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오늘 나는 위대한 텍사스주의 석유·가스, 오하이오주의 발전, 조지아주의 핵심 광물 등 전략적 영역에서의 3가지 엄청난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프로젝트의 규모는 매우 크다. 그리고 하나의 특별한 단어인 ‘관세’가 없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내가 3차례 승리한 오하이오의 가스 발전소는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며, 아메리카만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은 수출과 나이가 우리나라의 에너지 패권을 이끌 것이다. 또한 핵심광물 시설은 외국 공급원에 대한 우리의 어리석은 의존을 끝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일본의 대미 투자 가치면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지난 12일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을 워싱턴DC

에 파견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하는 등 미국과 대미 투자 1호 안건을 논의해왔다.

당시 아카자와 경제산업상과 러트닉 장관 간의 미일 논의에서는 합의가 발표되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게시글 내용으로 미뤄 이후 추가 협상을 거쳐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다시 건설하고 있다. 미국은 다시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다시 이기고 있다”며 “이는 미국과 일본 모두에 매우 흥분되고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무역협정의 일환으로 일본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 계획 중 “첫 3개 프로젝트를 승인했다”면서 이들 프로젝트의 투자 규모가 360억달러(약 52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오하이오주 프로젝트에 대해선 “역사상 최대 규모 천연가스 발전 시설”이며 발전 용량은 9.2기가와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텍사스주 프로젝트는 “미국만(멕시코만) 심해 원유 수출 시설 건설”이라면 “연간 200억~300억달러의 미국 원유 수출을 창출하고 정유소의 수출 역량을 확보하며, 세계의 선도적인 에너지 공급국으

로서 미국의 지위를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조지아주 핵심광물 시설에 대해선 “합성 산업용 다이아몬드 제조 능력을 창출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첨단 산업 및 기술에 필수인 산업용 다이아몬드 생산을 미국 내에서 충당하게 된다고 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들은 함께 수천개의 고임금 미국 일자리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본이 자본을 공급하고 인프라는 미국에서 건설된다. 일본이 그 수익을 얻고, 미국은 전략적 자산, 확대된 산업 역량, 강화된 에너지 패권을 얻는 구조로 짜여졌다”고 강조했다.

미일 양국의 새로운 무역협정에 따른 1호 대미 투자처가 발표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을 향한 대미 투자 압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한미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급거 방미해 러트닉 장관 등 미 고위 당국자 및 의회 인사들을 면담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을 찾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났다.

연합뉴스



미국과 이란은 군사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간접 핵 협상을 앞두고 이란 시위대가 유엔 사무소 앞에서 피켓과 초상화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美·이란, 군사긴장 속 제네바서 핵협상 이란 외무 “양국 합의문 초안 마련 뒤 다음 협상 일정 결정”

미국과 이란은 군사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17일(현지시간) 열린 핵 협상에서 최종 합의의 토대가 될 기본 원칙(guiding principles)을 마련했다.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주재 오만 대사관 관저에서 약 3시간 30분에 걸쳐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협상을 했다.

지난 6일 오만에서 협상을 재개한 지

11일 만이다.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 등 이란 대표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 만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 미국 대표는 오만의 중재자들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간접적으로 협상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협상 종료 후 이란 국영 방송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됐고, 이 아이디어들을 진지하게 논의했으며 궁극적으로 여러 지점 원칙에 대한 전

반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원칙들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 원칙들에 따라 작업하고 잠재적 합의 초안 마련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논의가 앞서 열린 협상과 비교해 더 건설적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것이 반드시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경계했다. 차기 협상에 대해서는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각국에서 잠재적 합의문 초안을 마련한 뒤 이를 서로 교환하고 나서야 3차 협상 날짜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음 회담은 더 어렵고 상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